

## 푸쉬킨과 사랑의 수사학

김진영 \*

당신을 사랑했소. 어쩌면, 사랑은 아직도,  
내 가슴속에서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지 모르오.  
그러나 그 사랑이 당신을 더는 괴롭히지 않기 바라오,  
당신을 그 무엇으로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소.  
말없이, 희망 없이 당신을 사랑했소,  
때론 수줍게, 때론 질투에 애태우며.  
너 너부도 진정, 너부도 애뜻이 당신을 사랑했거여,  
이제 靜이 당신을 다른 이로부터 사랑 받게 해주기만 바랄 뿐이오.)

Я вас любил: любовь ещё, быть может,  
В душе моей угасла не совсем;  
Но пусть она вас больше не тревожит;  
Я не хочу печалить вас ничем.  
Я вас любил безмолвно, безнадежно,  
То робостью, то ревностью томим;  
Я вас любил так искренно, так нежно,  
Как дай вам Бог любимой быть другим.

첫 고백이 아닌 다음에야, 연인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사랑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음을 롤랑 바르트는 자신의 연애 담론집에서 밝히고 있다.<sup>2)</sup> 그것은 고백도, 선언도 아니며, 메시지가 담긴 말이라기보다는 행위적인 기호에 차라리 가깝다는 것이다. 20세기의 프랑스 비평가가 염두에 둔 “사랑한다”는 문구는 사랑의 행위에 수반된 부수적인 외침(love-cry)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깨아리(나 역시 너를 사랑한다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도어(誘導語), 즉 사랑이라는 규범의 상투적

\*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앞으로 인용되는 모든 러시아어 텍스트의 번역은 인용자 자신의 것임.

2) Roland Barthes, *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 (Paris, 1977), pp. 175-83.

제스처어로 전략해버린 ‘담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난 널 사랑해”(Je t’aime)가 아닌 “난 당신을 사랑했소”(я вас любил) 라는 문구는 어떠한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쓰인 존칭형의 문장이 그 구절의 상투성을 과연 자동적으로 배제해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또한 “사랑”의 실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의 자위적, 내지는 자기변명적 상투어에 불과한 것일까?

푸쉬킨의 유명한 8행시 “당신을 사랑했소. 어쩌면, 사랑은 아적도, ...” (“Я вас любил: любовь ещё, быть может...”)가 씌어진 것은 1829년 말엽, 페테르부르크에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씩이나 “당신을 사랑했다”고 단언하는 이 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의가 있어왔지만,<sup>3)</sup> 여전히 가장 주된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것은 그 고백의 진의성 여부라 할

- 3) 푸쉬킨의 시야말로 양가성과 모호성에 그 미적 가치를 두는 매우 전형적인 예이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된 해석과 논평을 동시에 가능케 해왔다. 작품이 시적이거나 아니냐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나 아니냐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짧고 단순한 듯한 작품이 그토록 많은 해석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러시아 문학사에서는 다시없는 듯하다. 예컨대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이미지 없는 시(poetry without images)”, 또는 “수식 없는 시(безобразная поэзия)”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Овсяннико-Куликовский, Roman Jakobson), 곡언법(литот)이 사용된 매우 수사적인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В. Шкловский). 물론 푸쉬킨의 시에 나타난 ‘非詩性(не-поэтичность)’이야말로 19세기 초반의 낭만주의 시학 경향에 비추어본다면 진정한 ‘시성’(곧, минус-приём)의 체현이었을 것이라는 로트만의 종합적 견해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내용상으로는 전통적인 숭고한 연애시로 보는 방향이 지배적인 가운데, 푸쉬킨의 작품을 시인의 동성애적 무의식에 연결시킨 극단적 심리분석론도 존재하기는 한다(Rancour-Laferriere). 푸쉬킨의 시에 관한 가장 종합적이고도 상호텍스트론적인 연구는 졸코프스키에 의해 그동안 꾸준히,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되어 왔다. Овсяннико-Куликовский, Теория поэзии и прозы (М., 1923-29), с. 29-30; Roman Jakobson, “Poetry of Grammar and Grammar of Poetry,” in his *Language in Literature* (Cambridge, 1987), pp. 121-44; В. Шкловский, Тетива: о несходстве сходного(М., 1970), с. 233; Я. Лотман, Лекции по структуральной поэтике (Providence, 1968); D. Rancour-Laferriere, “‘Ja Vas Ljubil’ Revisited,” in T. Eekman & D. S. Worth eds., *Russian Poetics* (Columbus: Slavica, 1982), pp. 305-24; А. К. Жолковский, “The Literary Text - Thematic and Expressive Structure: An Analysis of Pushkin’s Poem ‘Ya vas lyubil ...,’” *New Literary History* 9 (1977-8), pp. 263-78; \_\_\_\_\_, “‘Я вас любил...’ Бродского: Интертексты, инварианты, тематика и структура,” in L. V. Losev ed., Поэтика Бродского (Эрмитаж, 1986), pp. 38-61; \_\_\_\_\_, Блуждающие сны (М., 1992), сс. 205-24 등 참조.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이 시가 “폭풍 같은 사랑을 사육 없는 애정으로 가라앉혀놓은” “가장 도덕적으로 숭고한 시”<sup>4)</sup>로서 임혀져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말로는 사랑의 과거형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재 진행중인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sup>5)</sup> 인간이라면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의 정신에 대한 이상주의적 믿음과 더불어, 러시아적 영혼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온 시인 푸쉬킨에 대한 이의 없는 신봉은 그와 같은 모범 해석을 낳았던 것이고, 그 표준화된 시읽기의 수명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푸쉬킨 시의 진의성에 대한 회의와 그 표준화된 시읽기에 대한 반항은 언제나 한 곁에 존재해 왔으며, 그 또한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 틀림없다. 일찍이 후배 시인 레르몬토프가 보여주었던 회의적 반응은 푸쉬킨 시를 읽는 우리 모두가 잠시나마 갖게 되는 심리적 망설임의 대변일 수도 있다. 그는 반론한다: “... 사랑하는 여인의 행복, 그것도 다른 남자와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 아니, 차라리 그녀는 불행해져야만 한다... ( ... естественно ли желать счастья любимой женщине, да еще с другим? Нет, пусть она будет несчастлива...)”<sup>6)</sup> 나와는 맺어질 수 없는 상대가 다른 사람과의 불행한 관계를 통해 그나마 나를 추억하며 그리워 해주기를 바라는, 그리하여 성취되지 못한 사랑의 간접적인 지속을 꿈꾸는 일이야말로 실연자의 가장 자연스런 심리일는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1831년에 씌어진 레르몬토프의 “N. I. 에게”(К Н. И.)는 바로 푸쉬킨의 부자연스런 사랑의 수사에 대한 시적 반론에 다름 아니니, 이 무슨 사랑의 저주인가.

어쩔 난 그대 사랑을 받을 자격이

4) С. Франк, “О задачах познания Пушкина,” “Светлая печаль,” Пушкин в русской философской критике (М., 1990), с. 444, с. 479.

5) “All studies of the poem ... agree that the poem is as much a declaration of *present* love as of *past* love.” Rancour-Laferrriere, p. 314. 이는 사랑에 있어서 말과 마음이 정반대의 “담론”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허다함을 말해주는데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수사학”일 터인데), 이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해주는 푸쉬킨의 시는 그 유명한 “너와 당신” (Ты и вы, 1828) 이다. “Пустое вы сердечным ты/ Она, обмолвясь, заменила/ ... / И говорю ей: как вы милы!/ И мыслю: как тебя люблю!”

6) А. В. Федоров, Лермонтов и литература его времени (Л., 1967), с. 55에서 재인용.

없는지도 몰라,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  
 부디 그대 또다시 [사랑을] 찾을지며,  
 그 또한 잃음을 견내지 말지어니.  
 허니... 나처럼 사랑했던 남자를  
 여사는 잊지 못하는 법.  
 더없이 행복스런 순간에도  
 그대, 회상으로 괴로울지니!  
 그대, 회한으로 아파 올지니!

.....  
 Я недостойн, может быть,  
 [Воей любви: не мне судить;

.....  
 Дай бог, чтоб ты навла опять,  
 Что не боялась потерять;  
 Но... жендина забыть не может  
 Того, кто так любил, как я;  
 И в час блаженнейший тебя  
 Воспоминание встревожит!  
 Тебя раскаянье кольнёт,

레르몽토프의 예가 보여주듯, 사실 푸쉬킨이 표출했다고 우리가 그동안  
 던어온 자기 의제의 사랑이 만드시 절대적인 러시아적 성향이라고는 볼 수  
 가 없다. 그뿐 아니라 푸쉬킨 자신의 전기적 및 시적 컨텍스트에 비추어볼  
 때도 1829년의 8행시에 나타난 메시지가 그다지 자연스런 귀결로 받아들여  
 시시만은 앓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푸쉬킨의 사랑의 행태가 당시 귀족 남  
 성 사회가 향유하던 일종의 유희적 의식의 규범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던  
 것임을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그리고 그에 대한 동시대인의 기록을 통  
 해 여러 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오네긴을 비롯하여 “우리[남성]”<sup>7)</sup>가 정통해 있는 “부드러운 열정의  
 기술(наука страсти нежной)”을 『예브게니 오네긴』의 화자는 다음과 같이

7) 결정본에는 생략되어 있는 1장 9연의 원고에서 푸쉬킨은 “자연이 아니라/ Stael이나  
 Chateaubriand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친다”(Люби нас не природа учит/А Сталь или  
 Шатобриан)고 썼다. ИСС в 17-и томах (1937-59), VI: 546.

소개하고 있지 않은가.

그 얼마나 일찍부터 가식을 알았던가.  
 희망을 숨기는 척, 질투를 느끼는 척,  
 믿지 못할 사람인 척, 믿어야 할 사람인 척,  
 슬픈 척 했다가는, 괴로운 척 행가면서,  
 오만한 듯 하면서도 온순한 듯 보이다가,  
 주의 깊은 듯 하더니 무관심을 표방하고!  
 그 얼마나 괴로운 듯 침묵을 지켰던가,  
 그 얼마나 열렬하게 열변을 토했던가,  
 친밀한 편지에선 또 얼마나 태연했나!  
 하나로만 숨쉬면서, 하나만을 사랑하며,  
 그 자신은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었지!  
 눈길은 또 어렸나, 재빠르고 부드럽고,  
 수줍고도 당돌하며, 그러면서 또 때로는  
 순종적인 눈물 방울 흘릴 줄도 알았었지!

Как рано он мог лицемерить,  
 Таить надежду, ревновать,  
 Разуверять, заставить верить,  
 Казаться мрачным, изнывать,  
 Являться гордым и послушным,  
 Внимательным иль равнодушным!  
 Как томно был он молчалив,  
 Как пламенно красноречив,  
 В сердечных письмах как небрежен!  
 Одним дыша, одно любя,  
 Как он умел забыть себя!  
 Как взор его был быстр и нежен,  
 Стыдлив и дерзок, а порой  
 Блистал послушною слезой!

(I: 10)

오네긴으로 대표되어지는 19세기 초 러시아의 연애가들은 “...한 척”, “...한 듯”하는 사랑의 법칙에 철저했었다는 이야기이며, 그것은 곧 그들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 사랑에 빠져 있었다기 보다는 그런 척했었다는 말이다. 가장 진실되며, 가장 즉흥적이어야 할 사랑의 감정에 있어서까지도 그들은

철저한 자의식의 연극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점에 있어 푸쉬킨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다. 동시대인인 볼콘스카야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모든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시인인 자신의 의무라고 간주했다”(Как поэт, он считал своим долгом быть влюблённым во всех хорошеньких женщин) 하니,<sup>8)</sup> 그의 잦은 연애야말로 일종의 시인으로서의 책기였을는지 모른다. 즉, 많은 경우 청년 푸쉬킨의 연애가, 그리고 그로 인해 비롯된 연애시가 진정한 감정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유희이자 의식이었고, 말 그대로 오비드식 ‘사랑의 기술’의 재현이었을 수 있으며,<sup>9)</sup> 그런 의미에서 그가 작품을 통해서는 비웃을 수 있었던 렌스키-오네긴식 사랑의 규칙으로부터 실제에 있어서까지 초연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볼콘스카야가 단언하듯, 과연 푸쉬킨이 그 모든 “37명의 여성”<sup>10)</sup>에게서 본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뮤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sup>11)</sup> 이 글의 목적이나 범위가 푸쉬킨의 연애론 규명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니며, 그의 연애시에 감춰진 심리적 진의를 가리고자 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8행시가 씌어진 1829년부터 결혼에 이르는 시기까지 푸쉬킨이 자신의 연애와 연애시쓰기를 통해 보여준 일련의 양상들은 상당히 흥미롭기에 여기 주요 사건만을 요약한다.

잘 아는 바대로 1829년 5월 푸쉬킨은 나탈리아 콘차로바에게 첫 청혼을

8) А. С. Пушкин в воспоминаниях современников, Т. 1, сс. 214-5. Ю. Лотман, Пушкин (Ст. Петербург, 1995), сс. 91-2에서 재인용.

9) Ю. Лотман, Пушкин (Ст. Петербург, 1995), сс. 91-2 참조. 푸쉬킨의 연애사 및 연애시에 관해서는 수없이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참고했고, 도움을 받았던 것은 로트만의 저서 외에도 Р. В. Иззунтова, “<Утаенная любовь> Пушкина” в Легенды и мифы о Пушкине, сс. 209-32; П. К. Губер, Дон- Жуанский список Пушкина (Пр., 1923); В. Соколов, Рядом с Пушкиным (Харьков, 1991); W. Vickery, “Odessa - Watershed Year: Patterns in Pushkin’s Love Lyrics,” in D. M. Bethea ed., Pushkin Today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93), pp. 136-51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0) “37명의 여성”이란 1829년, 푸쉬킨이 엘리자베타 우샤코바의 앨범에 남긴, 소위 말하는 “돈 휴안 목록”에 의거한 숫자이다. 푸쉬킨은 한편 1830년 4월 말, 베라 바젠프스카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아내가 될 나탈리아 콘차로바를 “113번째 사랑”으로 꼽고 있긴 하지만, 이는 사실이라기 보다 비유적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11) “В сущности, он обожал только свою музу и поэтизировал все, что видел.” Ю. Лотман, Пушкин, с. 92에서 재인용.

하며, 다음해 4월 두 번째 청혼을 한다. 두 번째 청혼이 받아들여져 그들이 약혼을 하는 것은 같은 해 5월 6일이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는 것은 1831년 2월 18일이다. 그러나 미래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 온갖 구애의 역경을 겪어야 했던 이 2년이 채 못되는 기간에도 푸쉬킨은 다른 여러 여성들에게 내력을 느꼈고, 그 중에서 A. 볼프(Вульф), E. 티젠가우젠(Тизенгаузен, неё Хитрово), K. 소반스카야(Собанская) 등에게는 더 없이 열정적인 연서와 연애시를 썼다. 또한, 1830년에는 세 명의 옛 연인들을 그리며 그들과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3편의 연애시("Заклинание," "Для берегов отчизны дальной...", "Прощание")를 쓰는 한편, 1829년에는 자신이 관계했던 여인들의 이름을 담은 '돈 휴안 목록'을 작성하는 기행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돈 휴안 목록은 나탈리아의 이름으로 끝을 맺고 있으며, 1830년에 쓴 3편의 시들도 이별의 연애시임을 고려해볼 때, 어떻게 보면 당시의 푸쉬킨이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자신의 혼전 연애사를 정리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1830년 3월, 결혼하기 불과 2달 전, 예카테리나 우샤코바(Ушакова)와 거의 약혼에 이르렀던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또한 그들이 작품을 통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해보며,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적 추론은 단 하나 밖에 없다. 곧, 푸쉬킨에게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성격의 사랑들(loves)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시로서 나타날 때는, 그리고 그 순간에 국한된 한에서는,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사랑(the Love)의 모습을 띄었던 바, 우리는 행해지는 연애와 말해지는 연애를 구분해야만 하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행태와는 달리 사랑의 '수사학'이란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롤랑 바르트가 연애 문학을 통해, 연인들 사이에서 씌어져 온 말들을 구분해 다루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표현, 어법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사랑어 사전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런 필요에서이며,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감히 '담론'이란 이데올로기적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이다.

"말해진 생각은 거짓"(Мысль изреченная есть ложь)이라는 튄체프(Тютчев)의 철학적 명제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결국 말이란 텅 빈 껍질일 뿐이며, 우리의 사고와 말이 일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기에, 일단 말로 표현되어진 것에 대한 진의성 여부를 따진다

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임는지 모른다. 더군다나 푸쉬킨처럼 거의 동시에 진행된 여러 대상과의 다양한 관계를 '사랑'으로 통칭했던 경우, 그래서 그 시가 누구에게 씌어진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sup>12)</sup> "당신을 사랑했소..."같은 작품의 "숭고한 도덕적 정신"을 칭송한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을 사랑했다"는 세 번의 확인에 관계없이, 푸쉬킨의 시는 불확실한 감정과, 그에 대한 자각의 미진함으로 가득 차 있다. 시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현재성인지, 아니면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사랑에 대한 회상인지를 확정지을 수 있는 내적 일관성이 시에는 부족하다. 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고백인지, 아니면 이별의 선언인지, 그의 어조가 고통스러운 사제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사랑이 휘몰고 지나간 후의 냉정한 평온함의 결과인지, 즉 시의 메시지가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역설에 불과한 것인지를 독자들은 쉽게 단정지을 수 없으며, 실은 그 점에 대해 화자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푸쉬킨 학자는 세 번 반복되어진 "당신을 사랑했다"는 구절의 리듬 패턴에 의거하여, 푸쉬킨 시의 이타적 파토스를 증명해 보여준 바 있다. "주술처럼 세 번 반복되어진" "난 당신을 사랑했소"(я вас любил \_ ' \_ )라는 문장에서 역점은 항상 '당신'이란 단어에 떨어짐으로써 자연 '나'라는 주체는 역점 없이 뒤로 물러서게 되며, 이는 곧 전적으로 이타적인 화자의 감정과 의지에 대한 운율적 은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sup>13)</sup> 그에 의하면, 시 전체를 통해 그러한 이타성이 확인되어지고 있는 만큼, 시의 맨 마지막 구절--우리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은 결코 역설이 아닌 진실인 것이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역점이 '당신'이란 단어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라는 과거형 동사 어미에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의 리듬(역점의 분포)을 통해 의미에 있어서의 강도 여부를 유추해본다는 그 푸

12) "당신을 사랑했소..."는 올레니나(Оленина), 소반스카야, 폰차로바 중 한 명에게 씌어진 것이라는 설이 있다. Rancour-Laferriere, p. 305 참조.

13) С. А. Фомичев, Поэзия Пушкина (Л., 1986), с. 186.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не только последняя строка, но и все стихотворение -- мольба о счастье любимой. В самой фразе: 'Я вас любил,' повторенной как заклинание, трижды, метрическое ударение падает на слово 'вас,' оставляя первое слово безударным. И потому финал стихотворения не парадоксален..."



쉬킨 학자의 논리를 따르다면, 우리는 화자가 상대방의 중요성을 세 번에 걸쳐 강조해주는 것 못지 않게, 사랑했다는 사실, 즉 사랑이란 감정의 과거성 역시 강조하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다면, 화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고결한 감정의 낭만적 이상형이라고 보다, 차라리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그다지 “진정으로, 애뜻하게” 사랑했던 것이 아니기에) 상대방을 그리도 담담하게, 그야말로 축복과 함께, 떠나보내주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일지도 모른다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해진다.

“당신을 사랑했다”는 구절을 제외하면, 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온통 부정과 서법(敍法, модальность)<sup>14)</sup>의 언어라는 사실 또한 그와 같은 해석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러시아어로 읽어보면 훨씬 더 확실한데, “당신을 사랑했다”는 과거에 대한 서술 외에 확인되는 것, 긍정되는 것은 더 이상 없다.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서법적 방식을 통해 가정되어지거나, 아니면 부정형으로서 나타나며(“любовь, еще, быть может, угасла не совсем”; “пусть она вас больше не тревожит”; “Я не хочу печалить вас ничем”; “Дай вам Бог любимой быть другим”), 그리하여 “당신을 사랑했다”는 긍정의 평서문은 부정과 모호함과 막연한 바램의 언어에 둘러싸인 채, 그 확실성을 잃고 마는 것이다.

거의 같은 식으로 사랑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는 또 한 편의 푸쉬킨 시를 대조하여 읽어볼 때, 1829년 시의 수사적 특징은 더욱 더 확실히 드러난다.

모든 것은 끝났으니: 우리 사이란 없다.  
 마지막으로 네 무릎을 껴안은 채,  
 난 애처롭게 호소했었지.  
 모든 것은 끝났으니 -- 내 대답이 들린다.  
 또 다시 나 자신을 기만하진 않으리,  
 내 애수로 널 괴롭히지 않으리,  
 어찌면 과거일랑 잊게될런지도 몰라 --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  
 넌 젊고: 네 영혼은 아름다워

14) “서술 내용에 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문법적 수단에 의해 표현하는 것을 서법성(modality)이라 한다. 심적 태도란 화자가 서술 내용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 필연성을 인정하여 서술을 표현하느냐를 말한다.” (『영어학 사전』, 신아사: 1990, 737면)

널 사랑할 이 많고도 많으리.

Все кончено: меж нами связи нет.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обняв твои колени,  
 Произносил я горестные пени.  
 Все кончено -- я слышу твой ответ.  
 Обманывать себя не стану вновь,  
 Тебя тоской преследовать не буду,  
 Прошедшее, быть может, позабуду --  
 Не для меня сотворена любовь.  
 Ты молода: душа твоя прекрасна,  
 И многими любима будешь ты.

(1824)

일견 두 시는 외면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둘 다 사랑의 끝을 노래하고 있으며, 동일 운율 (пятистопный ямб)과 동일 구조 (주요 구절의 반복), 동일 문형 (부정형의 반복), 동일 단어(быть может; любима будеш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시의 화자 모두 끝나버린 사랑을 인정하며, 연인의 행복을 기원하고는 있지만, 실상 그 어투상의, 그리고 어조상의 차이는 크다.

1824년 시의 화자는 사랑의 종말을 간명하게 선언한다. 가정과 모호성의 수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1829년 시의 화자와는 달리, 그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단호하다. 그 단호함은 한 치의 미련도 허용하지 않는 맨 첫 줄의 단문형 구조와 구두점의 사용에서부터 잘 반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두 번의 반복구(그것은 화자가 두 번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속의 남녀 인물이 각각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아직 전혀 끝나지 않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듯만 하다. 오히려 단호한 부정은 긍정을 말한다고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그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것이 결코 그녀에 대한 마지막 시는 아니리라 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확신은 바로 시가 담고 있는 어투와 어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사실 시 속에는 사랑의 상투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투고 있는 연인들의 상투어가 가득하다. 모든 것은 끝났다는니, 우리 사이란 없다는니, 마지막이라느니, 또 다시 ...하지 않겠다는니, 과거를 잊겠다는니,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느니 하는 말들은 일상적으로 자주 내뱉어지는 사랑 다

틈의 담론이라 하겠는데, 그러한 상투어로 시가 가득 찬 만큼,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며, 시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리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는 아직도 감정에 격해 있는, 아직도 화가 나 있는 한 명의 건강한 연인을 상상해본다.<sup>15)</sup>

이에 반해 1829년 시의 화자는 결코 격해 있지 않다. 존칭형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그 외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자신과 사랑의 감정 사이에 이미 상당한 거리가 존재함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당신을 사랑했다”는 말 이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란 단어를 자신과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다. “사랑은 아직도...(любовь, еще)” “그것이 [그 사랑이] 당신을...(пусть она вас)” - 이렇게 두 번 등장하는 명사로서의 “사랑”이란 단어는 그와는 격리된 독자적인 주어이자 대명사일 따름이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랑의 형용사형은 그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할 뿐이다(любимой быть другим).

그리하여, 그것이 단순한 수사학의 결과이건 아니건 간에, 1829년 시는 거의 초인간적이라 할 비장함과 숭고함의 어조를 담고 있음이 사실이다. 맨 마지막 줄에서 하느님의 가호를 빌 만큼 (Как дай вам Бог любимой быть другим) 사랑은 화자에게 있어 절대적이자 유일한 영역으로 승화되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1824년 시의 마지막 줄에서처럼 자신의 연인이 앞으로 많은 못 남성들로부터 사랑받기 바란다(и многи ми любима будешь ты) 속되고도 모욕적인 기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의 여인이 또 다시 사랑받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만큼이나 그녀를 사랑할 수 있는 단

15) 그가 쓰는 어투와 단어도 훨씬 친밀하며 구체적이다. 우선 그는 비존칭형을 쓰고 있으며, “무릎을 꺾안다”와 “사이/관계”(связ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두 연인의 관계의 깊이를 어느 정도 나타내준다. 그러나 물론 전혀 격해 있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서도 비슷한 내용의 수사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오네긴이 타티아나에게 하는 그 유명한 설교의 마지막 일부분은 놀라우리 만치 1824년 시의 레토릭을 답습하고 있는데: “나는 행복을 위해 태어나지 못하였으니/ 내게는 그것이 낯설기만 할뿐이오;/ ... /젊은 처녀의 가벼운 꿈들은/ 끝없이 바뀌는 법;/ 그렇게 나무도 봄이 오면/ 자신의 나뭇잎을 바꾼 다오;/ 그렇게 하늘이 정해준 것만 갈소/ 당신은 또 다시 사랑하게 될 것이오...” (『에브게니 오네긴』, IV: 14-6) “카프카즈의 포로”가 체르케스 처녀의 사랑을 거절하며 하는 말도 역시 거의 비슷하다: “여자의 사랑은 그다지 오래/ 차가운 이별의 슬픔에 빠져 있지 않는 법이니/ 사랑이 지나가고, 권태가 찾아들면/ 미인은 또 다시 사랑을 하리.”

한 명의 남자에 의해서일 뿐이며, 이는 곧 역설적으로 자기만큼 사랑하는 상대를 그녀는 다시 만나지 못하리라는 말의 완곡법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1824년 시에는 대화가 있다. 그러나 1829년의 시는 독백의 시이다. 전자의 화자는 발언을 하고 (произносил), 상대는 대답한다. 둘은 상호간의 감정을 나누며, 서로 그에 대한 표현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1829년 시 “당신을 사랑했소...”의 경우에는 사랑 그 자체의 방향이 일방적인 것만큼이나 그에 대한 표현 역시 일방적임을 알 수 있다. “말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화자는 여전히 발언되어지고 화답되어지는 말이 아닌 자신만의 독백을 통해 연인을 향한 사랑의 지속과 종식,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이어나간다.

아무튼 푸쉬킨의 1829년 시가 영원한 양면성을 안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 양면성은 사랑이란 인간의 감정이 안고 있는 근원적 양면성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가 유지하고 있는 수사적 모호함에 의해 강조되어 드러나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을 다룬 1824년의 시와도 비교해 보았지만, 또 하나의 경우와 대조해 볼 때, 푸쉬킨의 남성 화자가 구사하는 사랑의 수사적 모호성은 확연해진다. 그것은 한 때 자신을 거절했던 오네긴을 향한 타티아나의 대사로서, 1830년 9월 이전에 씌어진 대목이다. 즉, “당신을 사랑했소”를 쓰고나서 그리 오래지 않아 씌어진, 여성의 사랑 고백 장면인 것이다.

오네긴, 그 때 난 지금보다 젊었었죠,  
지금보다 더 나왔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었죠; 그리고는 어땠었나요?  
당신의 가슴에서 무엇을 얻었던가요?  
어떤 대답을? 오로지 준열함뿐이었지요.

.....  
행복은 그렇게도 가능했는데,  
그렇게도 가까이 있었는데!.. 그러나 내 운명은  
이미 지어졌으니. ...

.....  
당신을 사랑해요 (말장난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난 다른 사람에게 속한 몸;  
영원히 그에게 충실하겠어요.

Онегин, я тогда моложе,

Я лучше, кажется, была,  
И я любила вас; и что же?  
Что в сердце вашем я нашла?  
Какой ответ? одну суровость,

.....

А счастье было так возможно,  
Так близко!.. Но судьба моя  
Уж решена. ...

.....

Я вас люблю (к чему лукавить?),  
Но я другому отдана;  
Я буду век ему верна.

(VIII: 43-7)

남성에 있어서의 사랑의 수사학과 여성에 있어서의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와 같은 구별이 시공을 초월해 언제나 타당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1829년 시의 남성 화자와 위에 인용된 타티아나가 각각 보여주는 '사랑의 담론'이 완전히 상반된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타티아나가 일말의 회의나 모호함 없이 고백해 보이는 과거와 현재의 사랑은("я любила вас/ я вас люблю") "당신을 사랑했소"라고 세 번 씩이나 다짐하는 남성 화자의 끝없는 모호함에 대한 확실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을 사랑했다"는 그녀의 말에는 그 어떤 자기 연민적 부연도 뒤따르지 않으며, "당신을 사랑한다"는 시인(是認)에 있어서 역시 그 어떤 주저함이나 불확실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타티아나의 고백은 말 그대로의 메시지일 뿐, 롤랑 바르트가 말하는 행위적 기호가 아니다. 그것은 '말장난'을 하지 않으며("к чему лукавит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기술'을 위한 상투적 제스처가 아니다. 우리는 푸슈킨이 타티아나의 고백을 위해 한 편의 시나 편지가 아닌, 그리고 독백도 아닌, 그저 사랑하는 이를 향한 한 여인의 발언(speech)이란 형식을 선택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흥적인 대화에 있어서도 엄연한 수사학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사의 규범과 전통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나마 가장 문학적 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단순하고도 자연스런 발언의 장르를 통해 타티아나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녀가 한낱 사골 처녀였던 시절 오네긴에게 한 첫 고백이야말로 편지의

들을 갖춘, 그리고 상투적 수사어로 가득 찬 “사랑의 담론”이었으며, 그 첫 고백에서는 사실 “사랑한다”는 직설적인 구절이 부재했음을 기억해본다면,<sup>16)</sup> 그녀의 진정한 첫 고백은 바로 작품 맨끝에 등장하는 이 한 순간의 발언이라고 역설할 수 있다. 또한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게 된 오네긴이 선택하는 표현의 형식이 전혀 수사적 진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이 한때는 비웃기조차 했었던 연애시쓰기와 연애편지쓰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사랑의 수사에 있어서도 푸쉬킨이 타티아나에게 절대적인 진정성의 고지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19세기 초 러시아의 여성에게도 물론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사랑의 기술’은 있었고, 남성 못지 않게 상투적인 사랑의 수사학이 존재했다.<sup>17)</sup> 그렇기 때문에 타티아나의 사랑의 수사(그야말로 로트만식의 마이너스-수사)는 비단 남성의 수사학에 대한 대립일 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그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사랑의 담론에 대한 대립인 셈이다. 타티아나의 고백이 실증적으로 드러내준 직설의 수사는 남성 화자의 완곡어법적, 혹은 역설적 수사를 무력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진정성을 상대적으로 실추시킨다. “당신을 사랑했다/사랑한다”는 말은 물론, 각각의 마지막 구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에게 속한 몸이므로 영원히 그에게 충실하겠다” 對 “너무도 사랑했기에 당신이 다른 남자에게서 사랑 받기를 바랄 뿐이다.”

16) 물론 타티아나의 편지가 규범과 상투성의 틀 속에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유행하던 연애소설에서 따온 진부한 표현과 사고로 뒤범벅된 와중에도, 그것을 사랑의 수사로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나 의도가 그녀에게 전혀 없었다. 편지 중간에 감정의 격감에 따라 존칭과 비존칭을 섞어 쓰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마음에 든 남자에게 여자가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시 여성의 언어적-행동적 규범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17) 오비드의 『사랑의 기술』 자체가 남성편과 여성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남성과 여성의 독자적 사랑 규범은 전통적으로 틀 지어져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초 러시아라는 문화 공간에 와서는 기존의 사회 전통적 틀 속에 당시 유행하던 낭만주의 연애소설의 행동적-수사적 규범이 흡수되어 일반 귀족들을 위한 참고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예를 찾으려면, 푸쉬킨이 『에브게니 오네긴』에서 묘사한,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러시아 귀족여성의 전형적 양상들과, 아울러 당시 귀족사회의 일상적 규범들을 매우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Ю. Лотман의 저서, *Беседы о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СПб., 1994)를 참조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따로 떼어내 읽어보면, 두 문장 모두 상투적이기 그지없는 사랑의 담론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19세기 초 러시아 사회의 틀 속에 넣고 보았을 때, 또 푸쉬킨 자신의 문학적 컨텍스트와 그 문장들이 속해 있는 작품의 수사적 공간 속에 넣고 보았을 때, 그 차이는 분명 따져볼 수가 있다. “사랑하지만”과 “사랑했기에”의 차이, 직설과 가정의 차이, 단호한 의지와 막연한 기원의 차이 - 푸쉬킨은 이것을 단순한 남녀의 수사적 차이로만 간주했다기보다, 성격과 문화의 차이에 대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다. 타티아나 뿐 아니라 푸쉬킨의 다른 “낭만적” 여주인공들--「카프카즈의 포로」에 등장하는 체르케스 처녀, 「바흐치사라이의 샘」에 나오는 자레마, 「집시」의 쟈피라, 「석상 손님」의 라우라 등-- 역시 일반론적인 여성의 사랑 담론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곧 낭만적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차별, 문명과 자연의 차별, 인격적 진정성(sincerity가 아니라 authenticity)<sup>18)</sup> 여부에 대한 판별을 푸쉬킨은 바로 사랑의 수사학이란 렌즈를 통해서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푸쉬킨의 1829년 시 “당신을 사랑했소”...는 그 자체가 사랑의 담론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수사이다. 모든 연애시는 수사가 아니라면 비유(Любовная лирика - вся - если нетроп, то инакоговорение)<sup>19)</sup>라는 슈클로프스키의 말도 있지만, 푸쉬킨의 시야말로 독자들은 물론, 그의 뒤를 잇는 러시아 시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해석되고 사용되어져야 할 수사적 원형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만약 바르트식의 연애 담론집을 편찬한다면, 거기에는 “난 너를 사랑해”만이 아니라 “난 당신을 사랑했소”라는 별개의 장(章)을 첨가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그 장에는 그 한 구절을 둘러싼 우리들의 온갖 해석이 수록될 것이며, 남자가 하는 그 말과 여자가 하는 그 말이 분류되어 대비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에 인용하는 요셉 브로드스키의 시처럼, 푸쉬킨이 창조한 사랑의 수사학에 대한 영원한 변주들이 인용될 것이다.<sup>20)</sup>

18) Lione: Trilling의 작은 책자 *Sincerity and Authenticity* (Cambridge, 1971)는 그 두 개념의 차이(우열의 문제가 아니고)를 문학작품의 예 속에서 찾아 제시해준다.

19) Rancour-Laferriere, p. 305에서 재인용.

20) 인용되는 브로드스키의 시와 소스노라(Соснора)의 변주시에 대해서는 1996년 3월 28일 교토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 “Я вас любил: любовь еще, быть может...”: Об одном тропе русской любовной риторики”을 통해 분석한 바 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앞의 주에서 언급한 대로 푸쉬킨의 시에 관한 상호텍스트론적 연구는 줄코프스키에 의

당신을 사랑했소. 사랑은 아직도 (어쩌면  
그저 아픈 것일까) 내 뇌를 쭈시는구려.  
보는 것은 산산조각으로 박살나 버렸소.  
권총지신도 시도해 봤지만, 무기를 다룬다는 게  
여간 복잡하지 않소. 게다가 관사놀이를  
부심 버린다? 떨어져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져  
실패했소. 빌어먹을! 모두 사람 할 것이 아니오!  
너무도 열렬히, 희망 없이 당신을 사랑했소,  
神이 당신을 다른 이들로부터 --- 그러나 그렇게는 안될걸!  
많은 것이 역사 하시는 그 분이니까  
(파르메니드 말대로) 두 번씩 피를 불진러,  
내 곁은 허대 바스럭지게 만들어,  
위안의 봉(封)이 당신 입술 --- “젓가슴”이란 말은 지워버리고 -- 에  
당으려는 갈망으로 녹아 내리게 만들지는 않으실 테니!

И вас любил. Любовь еще (возможно,  
что просто боль) сверлит мой мозг.  
Все разлетелось к черту на куски.  
Я застрелиться пробовал, но сложно  
с оружием. И далее, виски:  
в который вдарить? (Портила не дрожь, но  
задумчивость. Черт! все не по-людски!  
Я вас любил так сильно, безнадежно,  
как дай вам Бог другими --- но не даст!  
Он, будучи на многое горазд,  
не сотворит -- но Пармениду -- дважды  
сей жар в крови, ширококостный хруст,  
чтоб plomb в пасти плавилась от жажды  
коснуться -- “бюст” зачеркиваю -- уст!

해 너무나 빈껍데기 취급되어져 왔으나, 그의 메마른 구조주의적 접근과는 또 다른 방  
향에서 후니 시인들의 푸쉬킨 시 수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많으며, 또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Резюме

## Пушкин и любовная риторика

Ким Чин Ён

Амбивалентность пушкинского стихотворения “Я вас любил: любовь еще, быть может, ...” вызвала до сих пор разные толкования. Его амбивалентность обнаруживается и на формальном и на содержательном уровне. Его амбивалентность на уровне содержания любопытнее. О чем идет речь? Пишет ли поэт о страстном утверждении любви или об ее исчезновении? Откуда такое альтруистическо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 от романтической сублимации или от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го равнодушия? Правду ли поэт говорит, или все это одна риторическая игра?

“Любовная лирика -- вся -- если не троп, то инакоговорение” -- так сказал В. Шкловский. “Я вас любил...” Пушкина для других поэтов и для нас не только одно стихотворение, а скорее, можно сказать, один большой троп русской любовной риторики. Для каждого читателя за пушкинским иносказанием кроется правдивая идея. А каждому поэту, следующему за Пушкиным, пользуясь этим тропом, можно еще подать свой голос.

Разные подходы к пушкинскому “Я вас любил...” -- структуральный, сравнительный, и интертекстуальный -- подчеркивают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любовной риторики пушкинской мужской речи,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совершенным антиподом “минус-риторики” женской любовной речи,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Татьяной.